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가 최상의 양육조건

Move Away Case란 이혼 진행과정 혹은 이혼 후에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당시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이주 할 경우, 이를 허용 혹은 자녀 양육권 변경을 결정하는 케이스를 일컫는 용어이다.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 싸움이 붙은 두 여인. 아이를 가운데 놓고 잡아당겨 뺏는 자가 아이의 생모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 아이가 다칠까 봐 아이를 잡아당기는 대신 놓아 버린 여인이 아이의 생모임을 지혜롭게 판가름했다는 솔로몬 왕의 일화가 있다. 오늘날 이혼법정에서도 자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당기며 줄다리기를 시합을 벌이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나, 그 정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예가 있다. 바로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



신혜원 (가정법전문 변호사)

가 이혼과 더불어 자녀를 동반하고 멀리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이를 허락해 달라고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는 'Move Away Case'가 그 경우이다.

Move Away Case란 이혼 진행과정에서 혹은 이혼 후에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당시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거나 혹은 자녀 양육권 변경을 결정하는 케이스를 일컫는 용어이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은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때로는 미국 내에서의 이주만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이주인 경우도 있다.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지만 방문권을 갖고 있는 부모는 Move Away Case가 자녀 방문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권익에 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주를 지지하거나 양육권을 변경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9·11 테러 사태 및 이라크와의 전쟁은 가정법원에서의 Move Away Case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국적의 남녀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나 부부가 됐다. 남편은 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고 아내는 관광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에서 딸을 낳고 살다가 별거에 이르렀다. 아내가 딸을 키우고 남편은 주말에 딸을 데려가 시간을 보내던 중, 이스라엘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남편의 동의하에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이스라엘로

떠났다. 그동안, 미국에 남은 남편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접수했다.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내와 딸이 미국에 재입국 비자 신청을 요청하니, 미 이민국은 아내가 과거에 관광비자 만기일을 넘기고 불법 체류했다는 이유로 재입국을 거부, 단 가정법원에서의 양육권 소송 참여를 위한 제한된 입국과 체류기간만을 허용했다. 아내는 양육권 소송 이후, 이민국의 명령에 따라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으므로, 딸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남편은 9·11 테러 이후, 이스라엘은 자살폭탄 테러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등 테러 행각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곳이므로 남편이 딸의 양육권을 갖고 미국에서 양육할 것을 허락하는 명령을 요청했다.

담당 판사는 지금껏 딸의 양육을 남편보다는 아내가 도맡아해왔다는 점, 아내는 남편이 딸을 방문하는 것을 격려하고 도모한 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일삼아왔다는 점, 아내는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지만 남편은 영주권 취득 이후 이스라엘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바탕하여, 아내가 딸의 양육권을 갖고 이스라엘로 이주할 것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남편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고등법원은 지법 담당 판사의 명령을 재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에서, 모든 판사가 입을 모아 동의한 사항이 있으니, "현재 이스라엘로의 이주가 위험 부담률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도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단, 전쟁이나 테러에 대한 위험 부담률이 있는 곳에서 살망정, 지금껏 자식을 맡아 키운 어머니의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만큼 아이의 안전과 권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라는 결론이다.

돈, 학벌, 명예, 사회적인 지위의 부여와 보장이 곧 자녀 사랑이라고 믿는 부모님들, 참된 자식 사랑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기를 희망한다.

문의_213-251-5401